

# 인구와 사회

3주차

박한경

# 한국의 저출산

- 인구대체수준 출산율: ??
  - 합계출산율(TFR, total fertility rate)
  - 저출산(low fertility): TFR ?? 이하
  - 초저출산(lowest-low fertility): TFR ?? 이하 \_\_년 이상 지속
  - 출생(birth) vs 출산(fertility)
- 
- 초저출산 상태에 빠지면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장기간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음 = 초저출산의 덫(Wolfgang Lutz)
  - 일본 – 초저출산 탈출?: 1.26(2005) → 1.36(2019)
    - 실제 출생아 수는 감소: 106만 → 86만5천

# 출생아 수의 감소

1958년 – 100만 이상

~ 1974년 – 95만여명

1982년 – 85만

1991년 – 71만

2000년 – 64만

2003년 – 49만5천

~2016년 – 40만 명대

2017년 – 36만

2020년 – 27만2천. 30만대 붕괴. 코로나 영향?

# 저출산은 한국만의 현상?

남유럽 - 1990년대에 1.3 이하 기록

동유럽 - 1990년대 후반~2000년대 초반 1.0~1.3

일본, 대만, 싱가포르 - 초저출산

방글라데시 - 2016년 2.1

인구폭증 시점 이미 통과 - 2100년 즈음 세계 인구 109억 도달 후 감소 전망(2010년 UN 추계)

But, 2060년 경 97억 정점으로 감소하리라는 새로운 추계. 2100년에는 88억 명 예상

한국만 추세에 역행해서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움

# 한국 저출산의 문제는?

- 초저출산 기간이 길어지는 것
- 출산율 감소 속도의 가속
- 초저출산 극복의 어려움
  - “자녀를 원하지 않는 사회”
  - <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>
    - 20대의 52.5%, 30대의 41% “결혼 후 자녀 필요없다”

# 출생아 수 예측

- 출산 결정 요인 – 생의학적 요소, 사회적 요소
  - 생의학적 요소 –
  - 사회적 요소 –
- 출생아 수의 예측은 가임기 여성의 규모(생의학적 요소)와 출산을 결심하거나 미루게 하는 사회적 요소가 두루 작용.
- 생의학적 요소만 고려해 보면 – “오늘의 출생아 수는 대략 30년 후의 출생아 수를 결정”

# 출생아 수 예측

- 한 세대에 80만 명이 태어나면
- 그 중 절반인 40만 명이 여성
- 이들이 성인이 되어 아이를 두 명씩 낳으면
- 한 세대 뒤인 30년 뒤에도 출생아 수는 80만
- 따라서 인구 대체 수준의 TFR은 \_\_\_\_

#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

[도표1-1]

1975년 약 87만 명 출생 – 이들이 아이를 한 명씩만 낳는다면, 28년 후인 2002년 출생아는 40만명대로 결정됨

실제로 IMF 겪으며 1997~2001에 아이를 거의 한 명 낳는 사회가 됨



#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

## [도표1-2]

- 출생아 30만 명대의 급속한 붕괴 - 출생 시 성비의 영향
- 여아 출생아 수 40만 명대에서 1984~90 30만으로 급감: 산아제한 정책+남아선호사상 결합 결과
- 1970년 성비 109, 1990년 116 정점(둘째 117, 셋째 이상은 200) - 이 상태에서는 TFR2.1에서도 인구 감소
- 1994년 72만 출생 중 남아 38.6만, 여아 33.5만(남아의 86%)
- 왜곡된 성비 시기에 태어난 여성이 30년 뒤 출산. 현재 TFR 1 이하이므로 이들이 낳는 자녀 수는 30만을 하회

#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

- 현재의 출생아 수는 30년 전의 출생아 수에 의해 결정된 것
- TFR이 2.0 이하로 내려갔던 30년 전에 산아제한 정책을 재고했다면? 남아선호사상이 없었다면?
- 현재의 초저출산은 인구학적 관점이 부족했던 과거 인구정책의 결과
- 한국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비 불균형 해소. 남아선호사상 약화.

# 미래 인구 추계

## [도표1-3]

- 2100년 인구: 기존 사망률 적용 - 1800만, 수명 연장 고려하면 2100만. 초고령층 인구 비중 급증.
- 30년 뒤인 2050년경부터 매년 40~57만 감소 예상. 즉 2년마다 100만 감소.
- 베이비붐 세대가 30년 뒤에는 90대. 이들이 2050년 경부터 매년 70만 명 사망할 것.
- 30년 뒤 출생아 수는 현재의 출생 여아 수에 의해 결정
- 2019년 30만 출생. 이 중 여아가 15만. 이들이 30년 뒤 1명씩 출산하면 30년 뒤의 출생아는 15만 명.
- 70만 명 사망, 15만 명 출생이면 매년 55만 인구 감소

# 인구 이야기

- 120만 년 전 전 세계에 55,000명 생존 (아프리카의 Homo ergaster, 동아시아의 Homo erectus 포함) – 이로부터 현생 인류 파생
- 아프리카인과 비아프리카인을 포함한 모든 현생 인류는 지난 10만 년 동안 하나의 동질적인 조상 집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옴.(기존의 이론은 두 집단의 분리가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고 보았음)
- 6만 년 전 Homo sapiens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남
- 현생인류는 45000년 전에 유럽에 도달, 네안데르탈인과 5000년 정도 함께 거주 – 아이디어와 문화 교류 가능성

# 인구 이야기

- 현생 유럽 인구는 DNA의 최고 5%를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물려받음.
- 이후 현생인류의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네안데르탈 인구는 감소. 4만 년 전 멸종.
- 3만년 전 Homo sapiens가 지구상 유일한 인류가 됨
- 마지막 빙하기가 마무리 된 2만년 전인 구석기시대에 아프리카, 유럽, 아시아에 흩어져 1백만 명 정도 거주.
- 1만년 전 온난화 시작과 더불어 중석기 수렵채취 문화와 신석기 농경 문화 시작
- 농경 문화는 인구의 정착과 급증으로 연결
- 기원 원년 무렵 세계 인구 2억5천만 도달

# 인구 이야기

프랑스의 인구학자 Livi Bacci

“구석기시대 1백만, 신석기시대 1천만, 청동기시대 1억, 산업혁명 10억, 21세기 말 100억 인구는 단순한 인구 성장 이상을 의미한다”